



Analyst 유승우 · 02-3773-9180 · yswbest@skks.co.kr

Issue Comment

- ✓ 쿠팡이 2021년 상장을 검토한다는 블룸버그 보도가 나옴
- ✓ 상장 요건 감안시 국내보다는 해외 상장이 유력하다는 판단
- ✓ 투자자 설득 위해 풀필먼트서비스 개시를 앞당길 수도 있음

2021년 상장 준비하는 쿠팡

쿠팡이 2021년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블룸버그통신의 보도가 나옴.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쿠팡은 내년 상장을 위해 이미 세금 구조 개편 작업에 착수함. 또,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2,500만이 넘는 다운로드 횟수를 기록한 쿠팡은 2019년 연간 GMV가 \$100억불을 초과했고, 2019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60% 이상 성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2018년 매출액이 4.4조원이었음을 감안하면 최소 7조원대의 매출액을 기대해볼 수 있음.

구체적 상장 계획이나 증시가 밝혀진 것은 없지만 상장 요건을 감안했을 때 한국보다는 나스닥과 같은 해외 상장이 유력하다는 판단임. 미국에 상장한다고 가정했을 때, WeWork의 상장 실패에서 알 수 있었듯이 적자 유니콘 기업에 대한 보수적 밸류에이션 기준이 적용될 것임. 따라서 폭발적 성장성과 동시에 이익 가시성을 높여 투자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쿠팡이 풀필먼트서비스 개시를 앞당길 가능성이 있음. 한편, 유동성이 부족한 쿠팡이 손정의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회장의 엑싯 전략으로 상장을 검토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 자금 조달을 위해 상장을 검토하는 것인지는 아직 불투명함.

SoftBank-Backed Korean Unicorn Coupang Prepares for IPO as Soon as 2021

South Korean e-commerce giant Coupang Corp. is preparing for an initial public offering as soon as 2021, according to people with knowledge of the matter. The Seoul-based company, founded in 2010 by Chief Executive Officer Bom Kim and said to be valued at \$9 billion in late 2018, has begun working on tax structuring among other changes as it eyes a public listing next year, said one of the people, who requested anonymity because the matter is private. …(중략)…Korea's e-commerce market is the fifth-largest in the world and on track to be the third-largest by 2021, behind only China and the U.S., according to Coupang. Coupang -- whose app has been downloaded more than 25 million times -- had more than \$10 billion in gross merchandise value on its platform as of Dec. 31, according to a person familiar with the company. Sales increased more than 60% year-over-year in 2019, the person said.

자료 : Bloomberg(2020-01-09), SK 증권

-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투자판단 3 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